

올바른 수돼지 거세(去勢) 방법



박 종 대 축산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

양돈 산업은 현재 국민소득의 증가로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축산물 수요의 급증, 대일 수출의 증가, 광우병에 의한 상대적인 돼지고기 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일로에 있지만 '97. 7월이후 수입개방화에 따라 또 노동력부족, 분뇨 처리의 어려운 문제 등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수입개방화에 따른 심적 부담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찾는다면 그리 문제될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안전성과 기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질중심의 개량과 사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질중심의 개량에는 상당한 시일과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일반 양축가의 입장에서는 전문 육종업자이거나 정부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단기간에 육질개선의 효과를 올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수돼지의 거세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수출용 규격돈을 생산할 경우 거세를 하여야 한다. 거세돈은 사료효율과 증체율이 낮은

반면 성 성숙이후 증가율이 없어 암돼지와 혼합 사육을 해도 암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수돼지의 돈육에서 웅취(雄臭)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1. 거세의 이점과 현재의 문제점

양돈을 하는 목적은 돼지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기위한 것인 바 그렇다면 거세의 효과는 과연 어느정도일까? 1996년 축산기술연구소의 거세돼지에 대한 제한급여 효과의 시험성적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거세돼지에 대한 제한 급여효과(축기연, '96)

구 분	무제한	50kg 제한급여
일당증체량(g)	788	748
사료요구율	3.12	2.92
도체A등급 출현율(%)	8.3	63.8

이와같이 거세 돼지의 경우 지방 축적 능력이 높으므로 빨리 제한 급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한급여를 실시하면 도체 A등급 출현율이 무제한 급여시보다 8배나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표 2〉 '96년 5월 돼지등급판정 현황 및 등급별 가격동향(돼지박피)

(축협 축산물 등급 판정소)

등급	축협서울공판장		서울우성농역		부산동원산업		부산태강산업	
	두수 (두)	평균경락가 (원/kg)	두수 (두)	평균경락가 (원/kg)	두수 (두)	평균경락가 (원/kg)	두수 (두)	평균경락가 (원/kg)
A	7,451	2,962	2,753	2,896	2,902	3,154	1,870	3,112
B	20,051	2,812	10,372	2,827	7,330	3,061	5,079	2,963
C	23,056	2,601	10,430	2,607	7,704	2,752	5,436	2,720
D	9,115	2,333	5,121	2,409	3,051	2,394	2,516	2,440
E	7,587	1,317	4,213	1,310	3,850	1,311	4,360	1,325
계	67,260	2,523	32,889	2,504	24,837	2,623	19,261	2,470

난다. 다만 일당증체량이 무제한 급이시보다 40g이 떨어지나 이는 불과 판매체중의 2~3kg차이에 불과하며 거세를 실시하여야만 암돼지와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도체등급의 개선으로 인한 농가의 이익은 무제한 급여돈보다 8배나 달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96년도 5월 돼지 등급판정 현황 및 등급별 가격동향이다. 가격동향은 〈표 2〉와 같다.

이와같이 등급의 차이가 1kg당 100~200원의 큰 차이가 나고 거세를 함으로써 제한급여시 A등급의 출현율이 8배나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고, 수돼지 거세 기술이 어려운것도 아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로 가장 큰 이유가 등급차이의 이익이 양돈업자보다는 유통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유통에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자기가 생산해낸 돈육에 자부심을 갖고 브랜드화 해나간다면 시장 생돈가격 변화에 크게 동요되지않고 연중 일정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아직까지도 완전한 등급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현재 등급판정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 거세를 할 경우 근육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상강육(霜降肉)으로 육질은 고급화되나 정육율은 낮아져 육량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육류등급제에 따른 차등가격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어야 하며, 또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등급에 따른 차등 판매와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에게 이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의 문제이다. 과연 거세를 함으로써 지연되는 성장률과 사료요구율의 증가를 좋은 도체등급이 대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세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첫 번째의 장애물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작은 수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2. 거세(去勢) 시기

거세는 거세를 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을 고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의사의 도움이 꼭 요구되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자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세는 포유중일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 10일 전후에서 2~3주령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여 이유후에 실시할 경우 이유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는 2주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자돈은 취급이 용이하고, 성숙보다 상처의 치유속도가 빠르며, 고통도 덜 받고, 성장을 저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미리 돈사에 입식 등 무리없이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종돈군에서는 종축생산을 위해 선발때까지 늦춰져야한다.

3. 거세 방법

(가) 수술은 가급적 바람이 없는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전 12~24시간 절식시키면 취급이 용이하다.

(나) 수술에 앞서 메스, 가위, 감자(鑑子: 집어내는데 쓰이는 가위식 핀셋), 크레졸, 비누물, 설파제, 머큐롬, 탈지면 등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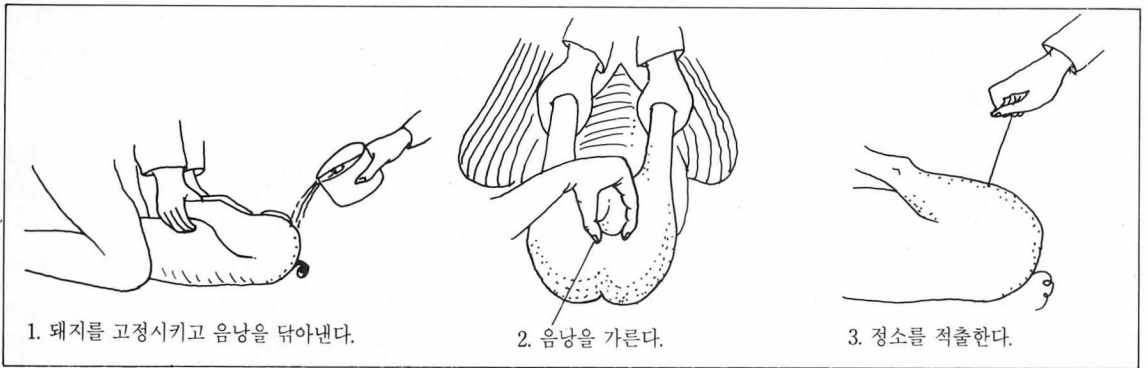
(다) 연령, 크기, 보조자의 수에 따라 돼지를 보정한다. 어린 자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다리를 들어 등을 보조자 쪽으로 향하게한 후 보조자의 무릎 사이에 자돈의 어깨쪽 갈비뼈를 끼워 고정시키거나 바닥에 눕혀 뒷다리를 <그림 1>과 같이 고정시킨다. 성축의 경우에는 윗턱과 뒤쪽 뼈드렁니를 올라미로 묶어 고정시킨다. 또는 뒷

다리를 묶어 메달아 선 자세에서나 뉘 자세에서 시술하게 된다. 보정틀이 있을 경우 보정방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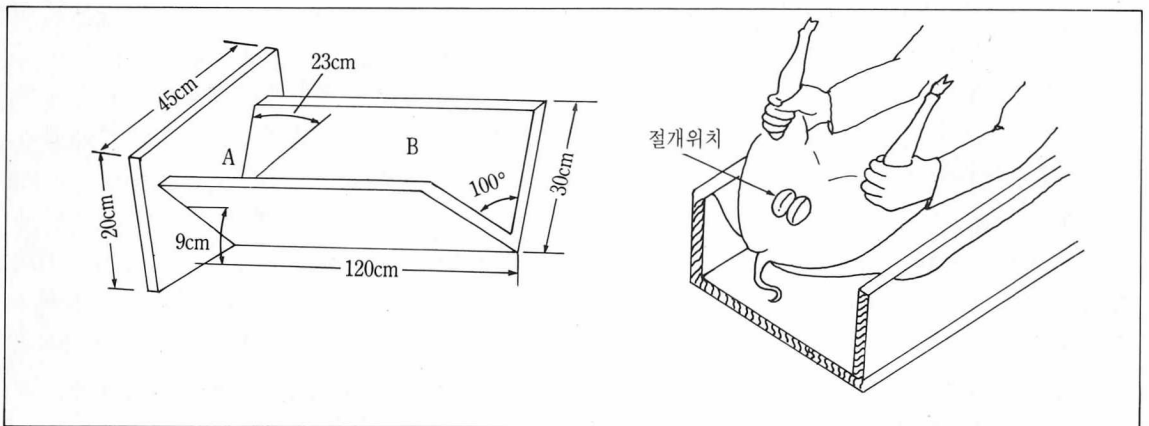
(라) 시술자는 손을 비누물과 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소독한다. 만일 음낭이 지저분하면 비누물로 깨끗이 닦아낸 후 거친 섬유솔로 세척한 후 소독한다.

(마) 칼은 수술전이나 수술중에 수시로 소독한다.

(바) 자돈이 완전히 보정되면 수술자는 좌측 중지(中指)로 좌측 정소(精巢)를 항문 쪽으로 정소를 눌러 고정한다. 수술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 오른손으로 메스를 잡고 정중선(正中線)에 병행하여 정소를 약 1~2cm 정도 절개하고 왼손으로 압출시키면 정소는 정소상체와 함께



<그림 1> 자돈을 지상에 눕혀 고정시키는 방법



<그림 2> 보정틀을 이용한 방법

제한근에 매달려 나오며 이것을 베어내면 정사(精糸)만이 남게 된다. 이때에 어린돼지는 소독된 손끝으로 돌리면서 끊고 큰 새끼는 봉합사로 매고 맨 부위로부터 약 2cm 정도 되는 곳에서 자른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쪽 정소도 제거하며 절개부위는 봉합할 필요가 없고 머큐롬이나 설파제 등으로 소독을 잘하여 준다.

(사) 파리가 많은 시기에는 곤충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약이나 방향제를 상처 부위에 뿌리거나 매달아둔다. 또 수술후에는 조용하고 깨끗한 돈방에 넣어서 가능한 운동을 시키지 않고 둔다.

가. 거세시, 거세후 유의사항

거세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1) 음낭 헤르니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숙련자만이 수술을 실시해야한다.

(2) 거세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기간을 피해서 실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의학자들은 거세시 상처는 돼지 콜레라 항체와 바이러스에 의해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일 거세가 예방접종에 선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기 전 상처가 충분히 치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일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수의학자들은 만일 예방접종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접종후 한달의 기간을 권장하고 있다.

(3) 만일 거세일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깨끗한 돈사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고온인 날이나 우중충한 날씨는 피해서 시술해야만 한다. 거세돈의 회복을 어렵게하는 위험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기위해서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돼지 위생시설이 완비된 돈사가 안전하다.

(4)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제한 급여를 하는 것이 과도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좋다. 구체적으로 제한급여란 살코기와는 달리 지

방은 외부물질의 편입으로 계속해서 축적되므로 급여하는 영양수준을 제한할 경우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축적을 사료로써 어느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사료 급여량을 제한하는 방법과 질이 떨어지는 사료, 즉 비육후기 사료를 무제한 급여하는 두가지의 제한급여 방법이 있다. 이런 사료의 제한 급여 방법은 돼지 생체중이 대략 50kg정도일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거세돼지는 지방축적 능력이 높으므로 이보다 빨리 제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거세돼지의 생체중이 50kg일 때 비육 후기 돼지사료를 2.0kg씩을 급여하고 그 이후 2주간격으로 0.1kg씩을 급여하여 110kg에서는 2.6kg을 급여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같은 돈방에 수용된 돼지의 체중차가 10~20kg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한 돈방당 수용두수도 무제한 급여시보다 줄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돼지가 일시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맺음말

국제화에 대응하기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육질개선 차원에서 거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용 규격돈을 생산할 경우 거세를 하여야 한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이것이 피할수 없는 벽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양돈업자들은 각 나라에서의 고기별 기호성의 차이에 따라 외국에서 선호하는 고품질의 안심이나 등심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집중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등급별 가격 차별제의 정착과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양축가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전문적인 육종인들의 육성과 양축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직업의식, 도전의식이 한 데 어우러져야하겠다.